

방글라 “IMF서 45억달러 차관 추진”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속 성장하던 경제 직격탄

외환 보유고 감소 위기감 고조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일부 국가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비교적 경제가 튼튼한 것으로 여겨졌던 방글라데시도 외환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다카트리본 등 방글라데시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24일 IMF에 45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차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방글라데시는 IMF가 지난 5월 1일자로 신설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통해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ST는 부도 상황의 나라에 투입되는 구제금융과는 성격이 다른 취약국 지원용 장기 기금으로

10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RST는 20년 만기에 이자도 싸 경제난에 허덕이는 개발도상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이날 중순 “IMF는 RST를 통해 450억달러(약 59조 원)의 양허성 자금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RST에는 국가마다 할당 금액이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는 조만간 IMF와 할당 금액 상황, 지원 조건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IMF 대표단은 오는 9월께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카트리본은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방글라데시도 IMF 차관을 받으려면 차입예약협정(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나 확대금융기구(EFF) 등 IMF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료 산업을 앞세워 2016년

이후 연평균 7~8%대의 고성장을 이어오다가 2019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0년 3.5%, 2021년 5.5%로 하락한 가운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물가 상승, 외환 보유고 감소, 자국 타카화 평가 절하 등 어려움이 겹쳐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출은 34% 늘어난 반면 수입은 39% 증가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72억달러(약 22조6000억원)로 1년 전 동기 28억달러(약 3조7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이달 20일 기준 외환 보유고는 397억달러(약 52조1000억원)로 1년 전 455억달러(약 59조8000억원)보다 상당히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과 마찬가지로 해외 노동자의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 이 금액 역시 6월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작년보다 5% 줄었다. /연합뉴스



캐나다 기독교 성지 ‘생탄느 호수’ 방문한 교황 캐나대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에드먼턴 북동쪽의 기독교 성지 ‘생탄느 호수’를 방문해 손을 흔들고 있다. 교황은 기독교가 선교 명목으로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25일부터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의회폭동 가담자에 징역 5년3개월

7개월만에 또 최고형 선고

지난해 1월 6일 미국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한 남성에게 지금까지 의회 폭동과 관련한 최고형이 선고됐다고 A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칸 판사는 경찰을 상대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마크 폰더(56)에게 검찰 구형량(5년)보다 긴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840명 이상이 의회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100명 가량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폰더는 그중 가장 긴 형량을 살게 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2월에 역시 5년 3개월을 선고받은 로버트 스콧 팔머와 같은 형량이다.

폰더는 폭동 당일 시위대를 막아선 의회 경찰의 방패에 장대를 휘두르다 부러져서 다른 장대를 집

어 경찰 2명을 공격했고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대를 상대로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호송차량도 없게 그를 풀어주고 의사당을 벗어나라고 했지만, 그는 다시 시위에 가담했다.

폰더는 자신이 그날의 혼돈에 “휘말렸을 뿐”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칸 판사는 폰더가 시위대의 물격을 이끌었고 경찰을 공격해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처칸 판사는 지금까지 재판한 13명 전 원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거나 더 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의회 폭동 가담자를 엄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폭동 참가자 다수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앞으로 더 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은 권총을 소지하고 의회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텍사스 출신의 가이 레핏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다음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 재입성한 트럼프 “부정선거” 또 주장

퇴임 후 1년반 만에 처음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퇴임한 뒤 처음으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입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극우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가 연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이 패배한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선거는 재앙이었고, 우리나라의 수치”라면서 실제로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승리

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걸(대선)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2024년 미국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나를 망가뜨림으로써 내가 다는 여러분을 위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중은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기원하는 구호인 “4년 더”를 연호했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다. /연합뉴스



미 세인트루이스 100년 만의 폭우 26일(현지시간) 100여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소방관과 자원봉사자가 시민의 대피를 돕고 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직후부터 세인트루이스 일대에 최대 300mm /연합뉴스

베트남 수도 하노이 과거로 회귀? ...전쟁때 쓰던 확성기 재도입

코로나 계기 “정보 전파 효율적”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전시에 공습 경보용으로 사용하던 구형 확성기를 공공 정보 전파를 위해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공공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는 2025년부터는 전역에서

구형 확성기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

하노이시는 미국과 전쟁중이던 1960~1970년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확성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전쟁이 끝난 뒤에도 확성기를 통해 행정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 및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었다.

이후 지난 2017년 8월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판단해 시내 곳곳에 설치된 확

성기를 인터넷 음향 장비로 대체했다.

당시 하노이 인민위원장은 응우옌 득 쯡은 “이제 확성기는 임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하노이시는 구형 확성기를 재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확성기를 방역 지침 전파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 공공정보 전달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당진(신축)원룸매매

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

▶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전남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